

광주시립장애인작업장 장총 재위탁 논란

〈장애인총연합회〉

“10년 위탁 불투명 예산 운용, 수익·임금 최저수준”

노조·근로장애인 부모회 대책 요구 시청 앞 1인 시위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이하 시립작업장) 노조와 근로장애인 부모회가 시립작업장 민간 위탁을 반대하며 1주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립작업장 노조와 근로장애인 부모회는 26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이하 광주장총)가 10년 넘게 위탁을 맡으면서 시립작업장이 광주지역 최악의 낙후된 보호작업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총이 운영을 하면서 시립작업장은 부적격원장 선임, 부적절한 예산 운영, 자격미달 직원채용 문제 등에 시달려왔다”며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장총을 시립작업장 위탁기관으로 재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작업장의 운영을 광주장총에 맡겨오다가 지난해 말 ‘광주장총의 재위탁이 불가하다’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광주시복지재단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별개의 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작업장을 하나의 시설로 보고, 지난해 11월 진행된 위·수탁 평가도 장애인복지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 시립작업장은 운영법인이 없는 상황으로, 광주장총은 광주시에 시립작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근로장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일액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재 시립보호작업은 30~35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립작업장 학부모회 등은 “광주장총이 운영을 하면서 시립작업장의 연평균 수익은 전국 보호작업장의 30~40% 수준에 그치고, 근로장애인들의 임금 또한 평균 1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들이 내놓은 ‘전국 보호작업장 대비 시립보호작업장 수익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시립작업장의 수익은 5870만원으로 전국 보호작업장 평균 수익(1억7100만원)의 34% 수준에 그쳤고, 지난 2014년에는 전국 평균 수익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시립작업장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14만7759원으로 지난 2012년(16만1774원)보다 줄어 들었다.

사회공공연구원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전국 광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이 분리 운영되는 사례도 없다”며 “시립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운영프로그램 하에 발전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노조와 근로장애인 부모회가 시립작업장 민간 위탁을 반대하며 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청 앞에서 1주일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립작업장 노조 제공〉

면개정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회계 등 기초적인 행정업무 점점에 그치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장총의 시립작업장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지난 22일 위·수탁 평가를 진행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이 경고 신호 보낸다

가족 81% 사전 인지 못해

■ 자살 경고 신호

우울증·과음 치료로 예방해야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이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지만 가족들의 81%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한 20세 이상 심리부검 대상자 121명과 유가족 1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내가 먼저 갈 테니, 건강해라
- 천국은 어떤 곳일까?
- 주변 사망자에 대한 그리움 표현

경고신호는 고인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로 직접적 언급, 주변 정리, 수면 상태 변화 등 언어·행동·정서적 변화로

표현된다.

언어적 경고신호는 ▲‘내가 먼저 갈 테니, 건강해라’ 등 직접적 언급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등과 같은 신체적 불편 호소 ▲‘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겠다’ 등 자살방법에 대한 언급 ▲‘천국은 어떤 곳일까?’ 등의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표현 ▲주변 사망자에 대한 언급이나 그리움 표현 ▲편지, 노트, 일기장 등에 죽음 관련 내용 기재 등이 있다.

행동은 ▲수면 상태와 식욕, 체중의 변화 ▲주변 정리 ▲자살 도구 구입 ▲평소와 다른 행동 ▲외모관리 무관심 ▲죽음과 관련된 예술작품이나 언론보도에 과도한 몰입 ▲가족 및 지인에게 평소 하지 않던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 ▲집중력 저하 등 인지기능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눈물 등 감정상태의 변화, 무기력, 대인기피, 흥미 상실 등은 정서적 경고신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이 가운데 15%만이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으며 과다 음주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25.6%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언어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보인다면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고교생들 캄보디아서 8박9일 봉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센터)의 ‘2015 광주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Gwangju Youth Volunteer Program)’이 최근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봉사단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지구+人を 사랑하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 프레이비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인원은 광주지역 고등학교생 19명, 지도자 2명, 의료진 1명, 장학생 1명 등 모두 23명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프레이비엥 청소년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청소년시설 개보수, 양 국가의 언어 배우기, 마을 어린아들과 함께하는 공부방, 미니올림픽,

한국의 전통문화를 나누는 파티, 음식교류, K-pop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의류나 가방 등 한국에서 기증받은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으로 책을 구입해 현지학교에 기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이 주관한 ‘2015 광주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은 지난해 9월 선발된 이후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캄보디아 문화교육, 현지 체험활동 프로그램 계획보고회 등 준비를 거쳐 파견됐다.

김성훈 센터장은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캄보디아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눔 정신을 배우고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광주 동구, 노인일자리 1612명 모집

광주시 동구가 오는 2월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20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612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시장형(근로형)’ 등 두 분야다.

공익활동은 노노케어, 취약계층·공공시설 지원, 경륜전수 지원 사업 등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형은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지하철 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등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이며, 근무조건은 월 30시간(사업별 근무형태 상이), 급여는 월 20만원 내외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준비해 동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조선대학교 노인복지센터, 동구시니어 클럽, 정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회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8-260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기초생활보장제 무엇이 달라졌나’ 내달 4일 특강

광주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기초생활상담사협회는 오는 2월4일 오후 2~5시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사회복지사회관 2층에서 ‘2016년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김희성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실장이 진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학생, 개인활동가 등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강에 참여할 수 있

다. 교육비는 2만5000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는 김희성 실장이 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책자가 분배된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자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를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577-545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